近代 韓國服飾의 變化 要因

李　明　姬*

The Factors of Korean Costume's Change in the Modern Times

Myoung Hee, Lee

<目 次>

Ⅰ. 序　言
Ⅱ. 社會的 背景
Ⅲ. 服飾의 變化 要因
1. 文化 傳播
2. 政府의 改革
3. 敎育의 普及
4. 女性의 社會的 進出
5. 階層 變化와 社會的 動搖
Ⅳ. 結　論

Abstract

Since Korea opened the door to the Western World, traditional costume has changed. The factors of change are as follows:

1) Cultural diffusion by the cultural contact is the foundamental factor of the costume change.

2) The government made edicts of clothing reform. The formal dresses of government official were simplified several times, the edict was issued for men to cut off their hair, and military uniform and government officials' dresses were westernized.

3) The diffusion of modernized education by the missionary school accerlerated clothing change. Students were ahead of the abolition of Suege-Chima (which is a sort of veil used to conceal woman's face).

4) The change in the activity of women in society made the women's dresses more convenient for action.

5) The open class system and social agitation speeded up the rate of change. During the Yi Dynasty class distinction was rigid, but the government made the laws which abolished the class distiction.

Ⅰ. 序　言

衣服의 機能은 保護機能과 社會心理的 表現機能으로 나눌 수 있는데, 表現機能은 着用者의 個性과 社會的 地位를 나타내며, 그가 속한 文化의 特性을 나타낸다.(1) 그러므로 한 社會의 衣服은 文化變動에 따라 多樣하게 變化하여 새로

* 漢城大學 衣裳科 專任講師

(1) 金鎭玖, "服飾의 機能", 대한가정학회지, 제18권 3호, 1980, p.4.

운 流行을 創造해 간다. 그 變化를 促進하는 要因에는 (1)嚴格한 階級差의 撤廢 (2)物質의 豊足한 供給 (3)餘暇 增加 (4)스포츠 普及 (5)敎育 擴大 (6)文化的 接觸 (7)젊음의 强調 (8)社會的 動搖 (9)女性의 地位向上 (10)技術 進步 (11)計劃된 改革 등이 있다.(2)

時代에 따라 嚴格히 制限된 社會體制에서는 變化의 速度가 눈에 띄지 않을 程度로 緩慢하고, 開放된 社會에서는 變化速度가 빨리지며, 社會的 變動이나 社會體制의 改革이 있을 때는 衣服의 急速한 變化가 일어난다. 西洋에서는 中世 以前에는 몇 百年 동안 fashion의 變化가 눈에 띄지 않았으나 르네상스 以後에는 fashion의 變化가 數十年에 한 번씩, 20C 末에는 每年 變化가 생기게 되었다. 社會的 變動이 있을 때는 變化의 速度가 더욱 빨라진다. 例를 들면 불란서革命 前後와 中國의 1949年 共產黨執權 후는 服飾이 急激한 速度로 變化되었다. 共產主義體制 以後 中國에서는 갑자기 Marx 理論에 따라 階級差나 性差가 없는 一律的인 衣服을 着用하였다.(3)

우리나라에서도 衣服의 뚜렷한 變化時期를 볼 수 있는데 新羅 眞德女王 2年(648年) 金春秋의 請賜冠服을 嚆失로 우리나라 官服은 中國式을 따랐으며,(4) 國末에 이르러서는 西洋文化와의 接觸을 契機로 다시 한번 服飾의 改革이 있었다.

近代 韓國社會와 같이 閉鎖된 社會가 開放社會와 文化接觸을 함으로써 固定된 民族服飾이 變化하게 될 때는 變化가 빨리 일어난다. 國末 以前 官服이 中國式을 따랐을 때는 一般庶民의 服飾은 在來의 國俗을 좇아 별 變化가 없었지만 近代 以後의 變化過程에서는 一般人들의 服飾이 全般的으로 달라지는 커다란 變化過程을 겪었다. 거기에는 먼저 文化傳播라는 基本的 要因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政府의 改革, 敎育普及, 女性의 社會的 進出, 階層 變化와 社會動搖 등이 뒤따라서 作用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變化要因이 된 劃期的인 일은 1895年에 政府에서 衣飾制度는 外國制를 採用하여도 무방하다 하고, 斷髮令을 내림으로써 西洋服飾과 二重構造를 갖게 된 事件이다.(5)

Ⅱ. 社會的 背景

韓國 傳統社會가 近代社會로 變化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始作한 것은 1870年代로서, 1873年 興宣大院君이 失脚한 뒤에 韓國社會는 轉換期를 맞이하게 된다. 1875年 雲揚號事件을 契機로 1876年 日本과의 江華島條約(丙子修好條約)을 締結한 후 계속 英國, 獨逸 등 西方 여러나라들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게 되었다. 1876年에는 最初의 外國派遣 使節團 一行 76名이 日本에 갔고, 1881年에는 紳士遊覽團이 74日 동안 日本에 滯留하면서 日本의 開化狀態를 視察했다. 1883年에는 親善使節團이 美國으로 派遣되었고, 이들은 歐羅巴까지 둘러 歸國했다.

그러나 開化派와 守舊派의 對立은 1882年의 壬午軍亂을 일으켰고 잠시 保守主義의 勝利를 가져왔다. 1884年의 甲申政變은 우리나라 政治를 近代政治로 이끌어간 契機를 마련했다. 1894年의 東學革命은 歷史를 새로운 方向으로 움직여 나갔다. 東學革命을 契機로 1894年에 淸日戰爭이 일어났고, 이 戰爭에서 勝利한 日本은 韓國의 內政에 더욱 干涉하게 되어 1894年에 甲午更張을 實施하게 했다. 甲午更張은 日帝의 武力干涉下에 强制로 公布되어 社會下層에서는 따르지 않는 무리한 改編이 되었지만, 社會改革을 위한 公式的인 轉換期를 提供하였다. 그후 1895年의 閔妃弑害의 己未事變과 1896年 俄館播遷을 겪은 후 1897年 高宗은 露運宮으로 돌아와 國號를 大韓으로 고치고 獨立된 帝國을 宣布하였다. 그러나 日本은 1904年 露日戰爭에서 勝利한 후, 1905年 乙巳保護條約을 締結하여 韓國의 外交權을 빼앗았고 드디어 1910年 韓日合邦을 通해 韓國의 國權을 完全히 빼앗았다.

1919年 三·一運動을 契機로 韓國民族은 엄청난 犧牲을 치렀으며, 그 代價는 文化政治라는 表面的 變化였고, 이때 言論, 敎育의 機會가 許容됐다. 1920年代 日本의 食糧 供給을 위해

(2) Marilyn J. Horn,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pp.100~113.
(3) Mary Ellen Roach, Joanne Bubolz Eicher, *Dress, Adorn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5, p.127.
(4)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大出版部, 1977, p.75.
(5) 前揭書, p.617.

「産米增殖計劃」이 施行됐고, 1930年代는 韓國에 直接 工場을 세우기 始作했으며, 低廉한 賃金으로 勞動者를 利用하였다. 日本은 1931年 滿州事變, 1937年 中日戰爭을 일으켰고, 다시 1941年 美國에 宣戰布告를 하였으며 그들의 無謀한 戰爭을 遂行하기 위해 韓國民에게 彈壓과 犧牲을 强要하였다. 우리 民族은 國內外에서 獨立運動을 繼續하였으며 聯合國側에 그 事情이 알려져 1943年 카이로宣言 중에 獨立의 確答을 얻었고, 1945年 8月 15日 드디어 日本으로부터 解放되었다.

Ⅲ. 服飾의 變化 要因

1. 文化 傳播

文化에 대한 定義는 學者들에 따라 多樣하지만 E.B. Tylor는 "社會 構成員으로서의 人間이 習得한 知識, 믿음, 價値觀 등 모든 慣習을 다 包含하는 複合的인 總體"라 하였다. 文化는 恒常 累積되면서 變化하는데, 文化 傳播의 메카니즘은 대개 人口移動, 植民地化, 征服, 宣教事業, 商業, 革命, 漸進的인 浸透 등이다.(6)

다른 東洋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의 歐美文化 進出은 먼저 宣教師에 의한 宗教活動 즉, 基督教文化의 傳播에서 始作됐다. 特히 教育을 中心으로 한 基督教文化가 舊韓末에 일부 知識人들에게 受容되었다. 日帝支配下에 놓여 있을 때 移植된 日本文化도 明治維新 以來의 歐美文化의 受容과 同化에서 形成되었으므로 間接的인 歐美文化의 接觸이었다.

우리나라에 西洋文化의 傳播를 통해 近代化過程이 이루어지면서 그 影響이 衣服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西洋文化에 接할 機會가 보다 많은 사람들의 衣服이 먼저 變하게 되었다. 傳導婦人들은 韓服 變化에 앞장섰는데 그들은 宣教師와 密接히 接觸할 수 있었으므로 西洋女子의 옷을 모방하여 짧은 저고리를 길게 하였고, 긴 치마는 짧게 하여 着用하였다.

最初의 洋服 着用者는 1881年 紳士遊覽團으로 日本에 갔던 金玉均, 徐光範, 兪吉濬, 洪英植, 尹致昊 등이라고 한다. 1883年 親善使節團이 美國, 歐羅巴를 돌아보고 올 때도 洋服 한벌씩을 사가지고 왔다고 한다. 그들은 돌아와서 服裝改革을 建議했고, 甲申衣制改革은 그 建議를 參酌하여 施行된 것이다.(7) 外交官들은 一般官服의 改革이 있기 前에 必要에 의해 個人的으로 洋服과의 服飾 混用이 있었다. 1876年 第1次 日本使節團의 修信使였던 金綺秀는 버선에 구두를 着用하였다.(8) 1888年 初代 美國公使 朴定陽, 駐美署理公使를 지낸 李夏榮도 버선에 구두를 신었고, 駐日本 全權大使 趙秉武는 상투머리에 모자, 버선, 구두를 着用하고 東京에 赴任하였다.(9)

1889年 李完容이 워싱턴 駐在公館으로 赴任時, 1896年 駐日公使, 駐俄公使, 駐淸公使들이 現地에 나갈 때 그들은 婦人을 데리고 갔으며, 1896年 李址鎔이 日本 特派大使가 되어 떠날 때도 公的으로는 처음 婦人 李鈺鄕을 帶同하였다. 그들의 外國 駐在는 西洋社會의 開化思想이나 生活樣式을 導入하는 契機가 되었으니, 李鈺鄕은 여러 女性團體에서 눈부신 活動을 하였으며, 그는 일찌기 洋裝을 하고 社交活動을 했다고 한다.(10)

1899年 尹致昊는 外國留學에서 돌아와 洋服을 입고 다닐 때 그의 婦人 尹高羅까지도 洋裝을 하게 하여 尹高羅는 女性으로서는 最初의 洋服 着用者가 되었다. 1896年에서 1900年까지 美國留學을 하고 돌아온 女醫師 朴에스더와 B.A. 學位 取得者 河蘭史는 美國留學後 계속 洋裝을 하였다. 1895年 斷髮令 以後 高宗皇妃인 嚴妃도 洋裝을 하고 記念寫眞을 찍은 모습이 있는데 年代는 確認되지 않는다. 1907年에는 崔活蘭이 日本에서 歸國할 때 當時 東京에서 流行하고 있던 팜프도어(히사시까미) 머리를 한 후 양말에다 구두를 신고 검정 통치마를 입고 歸國하여 話題를 불러일으켰다.(11)

以上과 같이 最初의 洋服 着用者들은 다른 사

(6) 金泳謨, 韓國社會學, 法文社, 1980, p.48.
(7) 柳喜卿, 前揭書, pp.625~628.
(8) 李圭泰, 開化百景, 4권, 新太陽社, 1969, p.61.
(9) 柳喜卿, 前揭書, p.628.
(10) 李効再, "開化期 女性의 社會進出", 韓國女性史 Ⅱ, 梨大出版部, 1927, pp.98~99.
(11) 柳喜卿, 前揭書, pp.640~641.

람들보다 먼저 外國文化를 密接히 接觸하게 될 機會를 가졌으므로 그 服飾이 자연히 일찍 變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一般人들에게 傳統的인 모습과 다른 服裝이 구경거리로서 奇異하게 여겨졌겠지만, 차츰 言論과 各 社會團體에서는 衣服改良을 빈번히 主張하였고, 文化 傳播와 流行의 擴散 原理에 따라 大衆들에게도 服飾 變化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거기에는 先進文化에 適應하고자 하는 必然的인 要因도 있었겠지만 實用的인 面에서 衣服改良을 試圖하려는 意圖가 크게 作用했다. 따라서 言論, 教育機關, 社會團體 등에서는 服飾改良에 대한 주장을 일찌기 강조하였다.

그와 反對로 古代社會에서는 新羅가 三國統一 후 三國服飾을 버리고 非實用的인 中國服飾을 받아들였을 때 服飾 變化가 官服에 限하였고 一般人들에게는 거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近代社會에서 西洋은 불란서革命과 產業革命 후 服飾實用化가 다른 社會에서 보다 가장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非活動的인 韓服이 西洋服에 영향을 받아 活動的인 服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文化進步에 따른 服飾의 자연스러운 現象이라 할 수 있다.

日本統治時代를 지내면서 日本文化가 우리 服飾에 끼친 영향력은 별로 없었다. 그것은 日本文化 自體가 西洋文化를 受容한 間接的인 西洋文化로서 作用했다는 점과, 反日感情이 日本 固有文化 受容을 沮害시킨 要因으로 作用했기 때문이다.

2. 政府의 改革

政府의 權力體制가 變化되거나 새로운 이미지나 이데올로기를 나타내려할 때는 먼저 衣服으로 그것을 나타내려 한다. 강제적인 國家政策이 服飾改革을 위하여 實施될 때는 服飾 變化가 매우 빨라지게 된다. 歷史的으로 볼 때 奢侈禁制法과 같은 國家政策이 國民의 衣服에 變化를 가져온 예가 많다. 그와 같은 計劃된 改革은 國家的인 必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西洋文化와의 接觸을 통해 一般 先覺者들의 衣服에 變化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그보다 먼저 政府에서는 法令으로 官服의 改革을 實施했다.

服飾現代化의 첫걸음으로 1884年에 甲申衣制改革이 斷行되었는데, 이때의 改革은 堂上의 時服인 紅團領은 입지 못하게 하고 大小朝儀進見 및 闕內外公故에는 모두 간편하게 黑團領을 常着하도록 하되 胸背를 加하여 文武品階의 區別을 하게 했다. 그 團領制度는 國初의 制樣을 따르되 盤領窄袖로 고치도록 하였으며, 朝·祭·喪禮服만은 先聖의 遺制이니 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私服도 道袍·氅衣 등을 廢하기로 하고 窄袖戰服·絲帶를 하기로 하였다.(12)

1894年 甲午更張時 社會改革의 하나로 官服의 簡素化를 命하였는데, 그해 6月에 公布한 內容은 朝官의 衣制를 簡易化하여 公式服裝은 絲帽에 盤領窄袖를 한다는 것이다. 盤領窄袖의 黑團領은 이미 甲申衣制改革時 등장하였으나 甲午更張 후에는 朝官의 公式服裝이 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甲申衣制改革에서는 品階 區分을 胸背로 한다고 하던 것을 甲午更張時에는 革帶로 하게 했다. 朝官의 私服도 漆笠·. 褡·絲帶로 定하였는데 褡襫를 周衣 위에 착용했으리라 본다. 士庶人의 服裝은 漆笠·周衣·絲帶로 하였다.(13) 그러므로 여기에서 周衣가 새로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1894年 12月에 다시 勅令을 발표하여 그 이전까지 着用했던 大禮服인 金冠朝服 대신 公服에 입었던 黑團領 하나로 大禮服이 되도록 했고 公常服은 區別 없이 小禮服으로 絲帽와 周衣 위에 褡襫를 입고 木靴를 신게 하였다.(14) 1895年 3月 乙未改革에서는 公私禮服에 褡襫도 없애고 周衣만을 입게 하였다.(15) 그러므로 朝鮮時代 500여年 동안 官吏의 外衣였던 團領은 周衣로 대신하게 되었다. 그해 4月에는 陸軍服裝의 規則이 制定되어 具軍服 대신 歐美式 軍服을 着用하게 했다. 8月에는 文官의 服裝에서 다시 褡襫가 등장하는데(16) 이는 周衣만을 着用하게 한데 대한 守舊派의 反撥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으

(12) 高宗實錄, 卷 21, 21年 閏 5月 28日, 6月 3日.
(13) 高宗實錄, 卷 31, 31年 6月 29日.
(14) 高宗實錄, 卷 32, 31年 2月 16日.
(15) 高宗實錄, 卷 32, 32年 3月 29日.

리라 생각된다.

1895年 11月에는 마침내 斷髮令을 頒布하고, 衣服制度는 外國制를 採用하여도 無妨하다고 했으며 網巾도 廢止한다고 하였다. 斷髮令이 내린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國王 이하 政府 官僚와 兵丁들까지도 모조리 削髮을 斷行하였다.(17) 이러한 斷髮令은 자연적인 必要에 의한 變化라기보다 우리 政府에 日本의 武力 간섭이 개입된 강제적인 施行이었으므로 더욱 國民들의 反撥이 컸고 각처에서 義兵이 일어날 정도였다.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에서 韓服이 밀려나기 시작한 것은 斷髮領이 實施된 1895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곧 뒤이어 官服의 洋服化가 일어났으니 1899年 8月에는 우선 使臣의 服裝을 洋服化하였고, 1900年에는 文官服을 歐美式 官服으로 바꾸어, 朝鮮王朝 500年의 舊官服制度는 여기서 완전히 洋服으로 바뀌게 되었다. 大禮服은 英國 宮中禮服을 모방한 日本의 大禮服을 모방했고, 小禮服으로는 燕尾服(tail coat, morning coat)과 frock coat, 常服으로는 sack coat를 着用했다. 大禮服은 金絲로 수놓은 燕尾形 衣服이었고, 小禮服과 常服은 上下同色으로서 당시 高宗의 燕尾服과 法務大臣 徐光範의 sack coat 차림이 사진으로 남아 있다.(18)

이같은 服飾改革은 政府의 開化 意慾이 깊어짐에 따라 世界의 進運에 따라가려는 意識的인 노력이 표면화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服飾을 통해 나타내려 하였던 것이다. 또한 당시 日本의 강제적인 간섭은 더욱 改革을 촉진시키는 要因이 되었다.

以上과 같이 政府의 改革으로 服飾 變化를 시도할 때는 먼저 官服의 變化가 있은 후에 一般人들은 다음 단계에서 이 變化를 받아들이게 된다. 一般人들에 비해 官吏들의 服裝은 일시적인 命令에 의해 改革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러므로 甲午更張 이후 衣服의 改革은 먼저 官服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官吏들은 先進國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外交面에서도 服裝이 그들과 유사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1895년의 斷髮令은 一般人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었으나 一般人은 官吏들처럼 직접적으로 改革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反日 感情과 섞여서 斷髮令에 강하게 反撥하였다. 一般 國民들은 計劃된 改革에 의한 服飾의 급속한 變化가 어려운 일이다.

3. 敎育의 普及

服飾에 대한 政府의 改革이 發表되었지만 그것은 주로 官吏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고, 一般人들에게 그 영향이 파급되는 要因으로서는 近代的 敎育의 普及을 들 수 있다. 韓國에서의 近代式 敎育 普及은 儒敎式 舊敎育體制를 벗어나서 敎育의 機會를 女子와 庶民을 포함한 國民全體에 開放하였다는 점에서 革新的인 것이었다.

近代式 學校敎育은 먼저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선교계 학교는 우리나라 新文化 수입의 중요한 기관으로 크게 기여하였다. 1886年에 아펜셀러에 의한 培材學堂과 스크랜턴 부인에 의한 梨花學堂이 서고, 儆新學校와 貞信學校의 前身이 設立되었다. 政府에서도 美國으로부터 敎師를 초빙하여 育英公院이라는 新式學校를 開設하였다.(19) 그러나 韓國 近代學校의 成立時期는 1894年 甲午更張 以後로 본다. 그 以前의 學校는 近代學校의 先驅的 形態로서 政府가 近代學校를 本格的으로 設立케 하는 강력한 자극제 역할을 했다. 甲午更張 以後 私學은 기독교계뿐 아니라 一般人 학교도 매우 많았으며 政府에서도 國政刷新에 있어 英才敎育의 시급함을 强調하고, 1895年에 漢城師範學校를 設立하였다.

1910年頃에는 一般 私立學校가 1,400여개, 종교단체가 設立한 것이 800여개, 官公立學校가 1,000여개로서 認可를 맡은 學校만도 2,250여개였는데,(20) 이는 당시 新文化를 흡수하여 近代國家 대열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가 점점 커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日帝時代에는 私學의 탄압과 함께 韓國人을 日本人化하는 일과 전쟁

(16) 高宗實錄, 卷 33, 32年 4月 7日, 8月 10日.
(17) 柳喜卿, 前揭書, p.618.
(18) 金美子, 開化期 文官服, 梨大大學院, 1975, pp.51~68.
(19) 吳天錫, 韓國新敎育史, 現代敎育叢書出版社, 1964, pp.76~77.
(20) 박상만, 韓國敎育史, 중권, 中央敎育硏究所, 1957, pp.88~106.

수행을 위한 일에 모든 敎育的 노력을 기울였다.

初期에 近代的 敎育을 받은 知識人들은 먼저 服飾 變化에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1883年 使節團의 一行으로 美國에 갔던 兪吉濬은 그곳에 계속 남아 韓國 最初의 유학생으로서 1884年 셀럼시의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인 뎀머(Dummer) 학교에 入學하였다. 당시 「뉴욕 타임즈」(1883. 11. 8)에는 "사절 수행원의 한 사람인 유길준은 자기나라 옷을 벗어버리고 지금 서양옷을 입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그는 이때 자기 韓服을 박물관에 기증했으며, 당시 洋服 着用 모습의 사진이 남아 있다.(21)

1892년 梨花學堂 學生 黃袂禮와 培材學堂 學生 朴某와의 결혼식에 신부는 면사포, 신랑은 프록코트에 禮帽를 쓰고 예물 교환까지 하였는데, 이것은 西洋服을 입고 거행한 신식 결혼식의 효시라 할 수 있다.(22) 黃袂禮는 당시 여성계 지도자로 1903年 日本 시찰을 다녀왔으며, 進明의 학감으로 지냈는데, 그는 언제나 洋裝 차림이었다.(23) 1896년 梨花學堂 출신의 朴에스더와 河蘭史는 외국에 유학하여 의학과 영문학을 전공하여 정식 학위를 받고 1900年에 귀국하여 여의사와 교사로 활약하였다. 河蘭史는 미국 유학 후 줄곧 고전적인 洋裝 차림에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고 外出하였으며(24) 朴에스더도 歸國 후 우아하고 검소한 洋裝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25)

近代式 敎育機關의 學生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머리를 깎고 洋服을 制服으로 着用하였다. 1896年 5月 23日 「獨立新聞」論說에서는 "學生服은 군인, 경관과 같이 洋服 입기와 斷髮하는 것을 奬勵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6月 11日 論說에서는 申箕善 學部大臣이 學生의 斷髮과 制服 금지를 지시한데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다. 또 6月 16日 雜報欄에는 "배재학당 학생들이 새로 머리를 깎고 제복 입은 모습이 팔팔하고 생기있어 보인다"고 讚揚하는 글을 실었다.(26)

쓰개치마의 廢止도 女學校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처음에는 그 길이가 짧아져서 어깨 위까지 올라가다가 1900年代부터는 學校에서 쓰개치마 使用을 금지하기 시작하였다. 1908年 貞信學校가 금지하고, 1911年에 培花學校가 금지하였다.(27)

1900年初 梨花學堂의 新女性들은 당시 여성복의 유행을 대표하여 이끌어갔다. 끈으로 묶어 입었던 속치마 허리를 어깨허리 달린 속치마로 변경하게 된 것도 1912年 梨花學堂의 미스 월터(Walter) 校長이 學生들의 衣服을 편리하게 改革하면서 一般에게 보급된 것이다. 처음에는 어깨허리 패턴을 재봉시간에 나누어주어 고치게 하고 체육시간에 치마를 검사하여 學生들의 치마가 3개월 후에는 모두 어깨허리로 바뀌었다. 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 방학에 고향으로 돌아간 學生들은 마을사람들에게 곧 이것을 보급시켜 着用케 했고, 마침내 全國에 유행하게 됐다.(28) 그후 어깨허리는 속치마뿐 아니라 치마와 바지 허리에도 이용하였다.

길게 땋아 드리웠던 女學生의 머리모양도 팜프도어(히사시까미), 다리미자루, 트레머리, 단발, 파마 등 時代에 따라 다양하게 變化됐는데, 이것은 一般 女性의 머리 형태에 영향을 주었다.(29) 또한 梨花에서는 1910年 대학 초창기 교과과정으로 양재 과목을 가르쳐서 西洋服을 보급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1907年 淑明女學校는 最初의 洋裝 校服을 着用하였는데 자주색 원피스에 분홍 안을 댄 본넷을 着用했다. 이 시기 洋裝校服은 당시의 재래식 韓服에 變化를 가져오고, 洋裝의 형태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意味를 갖는다고 볼 수 있

(21) 李光麟, 韓國開化史硏究, 一潮閣, 1969, pp.273~282.
(22) 柳喜卿, 韓國女性服飾의 硏究, 韓國女性史 Ⅱ, 梨大出版部, 1972, p.245.
(23) 李效再, 前揭書, p.82.
(24) 閔淑鉉·朴海璟, 한가람 봄바람에 : 梨花 100年 野史, 知人社, 1981, p.501.
(25) 柳喜卿, 前揭書, p.641.
(26) 前揭書, pp.623~624.
(27) 李圭泰, 前揭書, pp.31, 39.
(28) 閔淑鉉·朴海璟, 前揭書, p.62.
(29) 柳喜卿, 前揭書, pp.643~645.

다. 淑明의 洋裝 校服은 1910年 다시 자주색 韓服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이 시대 洋裝이 너무 異質的이어서 그다지 社會의 환영을 받지 못한 점도 있었겠지만, 1910年 韓日合邦 후는 女性의 愛國的 정신으로 오히려 韓服 着用이 늘었기 때문이다.(30)

1910年頃 韓城女學校는 흰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를 입었는데 통치마는 발목 위를 노출시켜 당시 一般人의 큰 이목을 끌었다. 1920年頃 校服은 거의 발목을 노출하였으며, 이때 지나치게 치마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무릎에서 발목 사이의 $\frac{1}{3}$ 길이로 치마 길이를 規程했다.(31)

1930年代에는 洋裝 制服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開化에 대한 인식이 깊어졌음을 뜻하는 面도 있었겠지만, 日帝가 韓服이었던 女學校 校服을 못마땅히 여겨 洋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校服은 블라우스, 스웨터, 주름치마, 세일러복, 타이, 모자 등이었으며, 女學生 校服을 본딴 洋裝이 一般 女性들에게 유행되었다.

이처럼 先歐的인 知識人들이나 學生들의 衣服에 먼저 變化가 생기기 시작하여 그들의 實用化내지 西歐化된 衣服이 一般人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으니 敎育의 普及이 服飾 變化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女性의 社會的 進出

朝鮮 女性은 오랫동안 父系 中心의 家族制度와 內外法에 의해 外部世界와 격리되어 있었으므로 女性들의 社會參與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기독교의 傳播와 東學思想이 浸透되면서 甲午更張 후 女性의 地位에 대한 意識이 싹트기 시작했다.

東學은 國民平等의 理念을 主張했는데 1894年 甲午更張時 「寡女再嫁」條項은 東學革命時 改革案의 하나였으므로 東學의 婦女觀이 女性地位向上을 위한 改革政策에 直接 關聯된 要因이 되었다.

18世紀 中國을 통해 들어온 天主敎는 1800年代 信徒가 1萬餘名이 되었고, 女信徒會가 組織되었으며 姜完淑 婦人이 最初의 女會長으로 活躍했다.(32) 1880年代는 基督敎 新敎 宣敎師들이 敎育 및 醫療事業을 하면서 女性 開化에 決定的인 役割을 하였다. 基督敎의 萬民平等思想은 階級打破, 男女平等思想을 傳播하였고, 宣敎師들에 의한 新文化의 導入은 女性을 世界情勢에 눈뜨게 하여 果敢하게 傳統을 拒否하고 나올 수 있는 契機를 마련했다.

近代的인 女性 敎育機關을 통한 敎育普及은 女性의 地位向上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1886年에 設立된 梨花學堂을 嚆矢로 女性敎育이 女宣敎師에 의하여 이룩됨으로써 女宣敎師를 모델로 한 社會進出의 意慾을 불러 일으켰다.

女性開化를 위한 主張이 言論을 통하여 자주 表現됐는데 「獨立新聞」,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 「기독신보」, 俞吉濬이 쓴 「西遊見聞」 등에서는 男女平等과 美國社會를 소개하는 內容을 실음으로써 初期 女性開化에 큰 影響을 미쳤다.

또한 獨立協會를 통해 集會를 열어 公開演說 및 討論을 자주 가짐으로써 獨立協會는 韓國女性의 社會組織活動의 嚆矢를 만들었다. 貞洞敎會에서 男女靑年會가 組織됐고, 1898年 9月에 찬양회(順成學校婦人會)가 組織되었다. 찬양회에는 첫 모임에 100餘名이 모였고, 그 趣旨는 女學校를 세워 女性敎育을 하며, 生活改善을 위해 啓蒙을 하려는 것이었다. 1899年 3月에 組織된 女友會에서는 蓄妾廢止令을 主張하여 德壽宮門前에서 連坐데모로 示威하기도 하였다. 1905年의 國債補償運動에는 婦女層이 積極 參與했고, 서울에서는 李儁烈士와 그 婦人 李一貞이 主動役割을 하였다. 李一貞은 當時 부인상회라는 雜貨商을 했고, 男子들과 함께 鍾路街上에서 演說을 하기도 했다. 1906年에 李鈺卿을 總裁로 한 親日系 高官婦人 主動의 女子敎育會가 組織되었다. 그들은 舊習打破를 위한 啓蒙을 試圖했는데 特히 女性들의 衣服 改良에 힘썼다. 綾羅綢緞을 避하고 짙은 색 衣服과 毛綿織物의 實用的인 衣服을 代用하자는 建議를 하였으며,(33) 當時 쓰개치

(30) 金春善, 韓國 女性洋裝의 變遷에 關한 考察 : 1945년부터 1960년까지를 中心으로, 梨大大學院, 1977, pp. 28~29.
(31) 李圭泰, 前揭書, pp.38~40.
(32) 李効再, 前揭書, p.25.
(33) 前揭書, pp.60~67, 89~90, 100~103.

마를 쓰지 않으면 外出하지 못했던 事實에 반발하여 政府에서 이것을 改良해줄 것을 請願하면서, 改良衣服의 模型까지 提示하는 積極性을 보였다.(34) 그밖에 서울과 地方에는 多樣한 種類의 婦人會가 있었다.

1900年代에는 國家 및 民族意識과 함께 近代的인 女性運動이 일어났고, 1910年代는 獨立運動을 中心으로, 1920年代는 女性의 地位向上을 위한 活動이 展開됐다. 그러나 日帝의 彈壓으로 社會活動의 熱意는 제대로 成長하지 못하였다. 1927年 女性運動의 統合的인 單一體制를 이룬 槿友會가 組織됐으나 3年後에는 自動的으로 解散되었다.(35) 1930年代는 文化·藝術·教育 등 各 分野에서 女性의 文化活動이 크게 눈에 띄는 時期이다. 1940年代는 日帝 植民地 支配期間中에 가장 苛酷한 時期로서 몸뻬라는 服裝이 生活服으로 登場했고 女性들도 戰爭터와 工場에 끌려가 受難을 겪었다.

現代的인 職業女性으로서는 1900年 政府에서 紙幣를 만들면서 典圜局에서 처음 女工을 募集하였고,(36) 그 다음 紡織工場, 精米工場을 통해 女職工이 繼續 募集되었다. 1931年「每日新報」에는 當時 京城府內 工場의 成人 男子勞動者는 9,779人, 女子는 3,337人이었다고 한다. 1900年代末에는 女事務員이 採用됐고 女醫師와 看護員이 輩出되었다. 初期 看護員의 制服(1908年頃)은 宣教師의 看護服과 韓服의 折衷形態로서 異色의 直領右衽 깃과 커프스를 달았다.(37) 1907年 8月 4日「大韓每日申報」는 負傷한 韓國軍隊를 看護할 때 "半 양복"한 婦人이 負傷兵을 病院으로 옮겨 나르는데 앞장섰다고 報道하였다.

이상과 같이 開化期 以後 女性의 社會的 進出과 役割의 變化에 따라 衣服의 變化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初期에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抵抗이 있었으므로 洋裝의 採擇보다는 韓服改良부터 시작하였다. 韓服改良을 먼저 실천한 것은 기독교의 전도부인이었다. 그들은 西洋女子의 간편한 옷을 모방하여 저고리를 純色으로 하여 길이를 길게 하였고. 긴 치마를 짧게 하여 활동에 편리하도록 改良하였다. 당시 一般 여인들은 보통 外出시 회장저고리를 입었으므로 저고리를 純色으로 입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다.

차츰 新聞에서도 女服改良에 대한 제의와 주장을 했으니 1906年 5月「帝國新聞」論說에서는 "정부에서 여자의 복식을 별도히 제도를 내어 상하의복을 한 빛으로 하고 저고리를 길게 하여 살이 보이지 않게 하고…"라 하여 女服改良의 구체적인 제의까지 하고 있다. 1907年 6月에는 다시 同 新聞 論說에서 "여성 의복을 외출에 간편하고 검소하게 개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8)

실제로 女性의 社會的 活動이 증가함에 따라 衣服이 편리하게 變化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朝鮮 여인이 內外用으로 着用하던 쓰게치마에 變化가 생겨 그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했는데, 무릎 길이가 엉덩이, 허리, 가슴 길이로 되다가 마침내는 어깨 위로 올라갔다. 1897年 俄館播遷 후 高宗이 慶運宮으로 돌아왔을 때 당시 사진에서 보면 女人들의 쓰개치마가 어깨길이로 고깔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39) 1900年頃부터는 新教育을 받은 新女性과 高官부인들이 쓰개치마를 벗었고 각 여학교에서 쓰개치마 사용을 금하였다. 培花學校에서는 1911年 가장 늦게 교칙으로 쓰개치마를 벗게 하였는데, 이때 부모들의 반대를 막기 위해 대신 검정 우산을 쓰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20年代에도 保守的인 一般人들은 쓰개치마를 사용했으니 그 당시 女性團體의 生活改善運動에는 쓰개치마를 벗자라는 주장이 있었다.(40) 1930年代에는 쓰개 치마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대신 양산과 쇼올이 일시적으로 등장하였다.

그 다음 저고리 형태에 變化가 나타났는데 朝鮮 中期 以後의 저고리는 매우 짧아서 가슴 위로 올라갔고, 배래가 팔에 딱 붙을 정도로 좁았으며, 깃, 섶 등도 매우 좁았다. 그러던 것이 1900

(34) 鄭世華, 韓國近代 女性教育, 韓國女性史 Ⅱ, 梨大出版部, 1972, pp.308~309.
(35) 丁堯燮, 韓國女性運動史, 一潮閣, 1974, pp.147~148.
(36) 李圭泰, 開化百景, 2권, 新太陽社, 1969, p.244.
(37) 李永福, 看護史, 壽文社, 1976, p.160.
(38) 柳喜卿, 前揭書, p.640.
(39) 李圭泰, 開化百景, 4권, 新太陽社, 1969, p.30.
(40) 丁堯燮, 前揭書, p.134.

年頃부터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해 1930年에는 허리 길이까지 길어졌으며 배래도 곡선으로 變化되면서 넓어졌다. 이때 깃 길이가 길어지고, 고름이 넓고 길어졌으며, 옷고름 대신 브로치나 단추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치마길이도 짧아지기 시작하여 1920年初까지는 발 길이에 오던 치마 길이가 무릎 밑까지 올라 왔다. 따라서 치마는 긴 치마와 통치마로 된 짧은 치마의 두 가지로 나누어 着用되고, 女學生이나 新女性은 外出時 짧은 치마를 着用했다. 종래에도 짧은 치마는 있었으나 바지가 밖으로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치마 길이가 짧아지면서 치마단에 층을 넣어 한 층 두 층으로 줄여 입거나 흰 줄의 물결무늬를 넣기도 했다.(41) 1935年頃부터는 저고리 길이가 다시 짧아져 가슴 부분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치마 길이도 길어졌다. 그러므로 당시 유행의 表現은 치마 저고리 길이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時代 女性들은 幽閉生活을 하였으므로 袍를 着用치 않았으나, 女性의 外部活動이 허용되면서 남자의 두루마기를 여자들도 着用하게 되다었. 그러나 남자들은 儀禮用으로 두루마기를 입었으나 여자의 두루마기는 겨울철 防寒이 그 목적이었다. 1920年代부터는 토시 대신 장갑을 사용하였고, 서구식 內衣가 들어오기 시작하여, 셔츠, 팬티가 着用되었다. 따라서 속적삼, 속속곳, 다리속곳 등은 없어지게 되고 다만 바지만은 韓服의 正裝을 위해 계속 남아 있었으며 바지의 끈허리가 어깨허리로 代置됐다. 또한 종래의 번거로운 속옷이 사라지면서 새로이 어깨허리 달린 속치마가 등장하였다.(42) 버선은 치마가 짧아지면서 그 길이가 약간 길어지다가 1906年 金基浩의 평양 양말공장 設立(43) 以後로 양말이 보급되게 됐다. 1920年代에는 양말, 고무신, 경제화(운동화), 구두의 보급이 확대되어갔다. 1930년대 梨花學生들은 목구두와 단화를 많이 着用했다.(44)

이처럼 韓服 改良에서 시작된 衣服 變化는 차츰 韓服과 洋服의 混用으로 되다가 다시 洋裝차림으로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에 최초 洋裝이 시작된 것은 1899年이지만 初期의 洋裝 着用者는 극소수 上流層이나 선구적 開化女性들이었다. 1920年頃부터 韓服의 일부가 洋裝化하기 시작하였다. 1910年代에 한일합방으로 위축되었던 服飾界도 1920年代에는 女性의 지위 향상과 활발한 社會進出로 말미암아 다시 많은 활동과 變化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당시 名士들은 新聞이나 雜誌에 洋裝을 하자는 글을 발표하였으며 곳곳에서 양재 강습회가 열렸다. 1922년에는 블라디보스톡 공립양복학교를 졸업한 最初의 디자이너 李貞嬉가 동덕여학교의 양재교사로 부임하여 아동복과 남녀 양복을 만들었다. 1920年代에는 팔다리를 노출시키는 해수욕복이 등장했고, 梨花에서는 체육복으로 블루머를 着用했다.(45) 1930年代에는 블라우스, 스웨터, 플레어 스커트 등 洋裝着用이 활발해지다가 1939年부터는 몸빼와 현재의 간호복같은 簡單服이 등장하였다.(46)

朝鮮時代 전통적 한복이 開化期 以後 서양복의 영향을 받아 變化되기는 하였지만 6·25 以前까지의 女性 服裝은 洋裝보다 韓服이 一般的 차림이었으며, 洋裝이 女性의 一般服裝이 된 것은 1950年代 後半부터이다. 따라서 女性의 社會的 進出과 文化 變動에 따라 50年만에 여성 服飾界의 一般的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남성은 더욱 일찍 洋服이 一般化되었는데, 그것은 여성보다 社會的 活動이 많기 때문에 衣服의 變化 속도가 빨랐던 것이다.

5. 階層 變化와 社會的 動搖

朝鮮時代에는 兩班, 中人, 常民, 賤民의 社會階層이 있었고, 階層에 대한 區別이 엄격하였으나 朝鮮의 兩班政治가 점차 무너져 가면서 굳어졌던 身分體制도 解體되고 새로운 階層 秩序가 나타나게 됐다. 그 이유는 支配層의 分裂, 政治 기강의 문란, 社會經濟 상태의 惡化, 財政의

(41) 李圭泰, 前揭書, p.40.
(42) 柳喜卿, 前揭書, pp.652~655.
(43) 開港 100年 年表·資料集, 新東亞 別冊附錄, 1976.1, p.24.
(44) 柳喜卿, 前揭書, pp.656~657.
(45) 金春善, 前揭書, pp.29~31.
(46) 元暎王, "우리나라 洋裝의 變遷", 國民大學論文集, 1973, p.404.

궁핍, 外寇에 따르는 戰亂과 饑饉 등이었으며, 새로 유입된 基督敎思想은 이같은 身分體制의 붕괴를 한 걸음 더 촉진시키는 것이었다.(47)

1894年 甲午更張時에는 社會制度 改革의 하나로 兩班·常民의 階級 差別과 奴隸制度 및 賤民 대우의 撤廢에 관한 조항이 있었으니 法制的으로는 비로소 과거 500年 동안 지녀온 身分的인 모든 制約이 풀어진 것이다. 또한 近代的 敎育機關을 통한 一般人에 대한 敎育 普及은 開放된 社會體制를 한 걸음 더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身分解體는 韓末의 戶籍調査(大邱府)에서 나타나는데 17世紀末에 兩班·常民·賤民의 비율이 각각 8.3%, 51.1%, 40.6%이던 것이 19세기 중엽에는 오히려 각각 65.5%, 32.8%, 1.7%의 逆現象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보편적 現象으로 班常의 身分意識이 거의 소멸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1910年 5月에 調査된 韓國人의 職業構造를 보면 종래에는 거의 없었던 非農業人口가 약 15%나 되었고 특히 商工業人口가 많아졌다. 1905年 4月에 調査한 서울 사람의 직업은 商業이 24.4%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傳統的 役割構造의 變化와 새로운 階層秩序의 편성을 의미하는데, 商工業에는 傳統的으로 몰락한 兩班 또는 常民, 심지어 賤民이 이에 종사하였다.(48)

특히 開港 以後 中人階級의 社會的·政治的 기능이 社會開發에 새로이 適應하게 되었는데, 中人은 下級 官吏나 기술직을 가진 자로서 특수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울의 중앙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므로 中人이라 指稱한 것이다. 中人階級이 많이 受容된 기독교 文化나 천도교 文化는 새로운 實學思想과 民主思想의 近代的 價値를 지니고 있었으며, 東學革命의 주도 세력에는 近代的인 商工業이나 農業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들은 身分的으로 傳統的인 支配階級에서 이탈된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身分解體와 새로운 階層 형성은 衣服에 대한 전통적 계급 구별을 불필요하게 했다. 활동이 자유로와짐에 따라 누구나 원하는대로 過去 傳統的인 韓服과 달리 變化된 服裝을 할 수 있었다. 특히 初期 近代的 교육기관에서는 敎育對象을 가리지 않고 下層民에게도 기회를 제공했으니 常民들도 敎育을 통한 역할 변화에 따라 衣服改良이 가능하였고, 경제력에 따라 상공업자들은 자유로운 服裝을 하였을 것이다. 먼저 官吏들과 선각자들의 衣服이 變化된 후 一般人들도 역할 변화와 경제력에 따라 용이하게 變化된 衣服을 채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빈번한 戰爭과 民亂, 饑饉 등으로 인한 社會的 動搖는 사람들의 價値觀과 傳統, 習慣, 道德 등의 規範을 變化시키게 했다. 그러므로 傳統的으로 내려오던 從來의 韓服을 繼續 着用하여야 할 文化的 根據가 사라졌고, 時代 變化에 따른 服飾 變化가 더욱 容易하게 되었을 것이다.

Ⅳ. 結 論

近代 韓國은 1876年의 江華島條約을 起點으로 하여 西洋世界에 門戶를 開放한 후 民族의 激動期와 受難期를 보냈다. 門戶開放은 傳統的인 慣習과 價値觀의 變化와 더불어 一般人의 衣服이 전반적으로 變化되는 過程을 겪게 하였는데, 그러한 衣服 變化에는 다음과 같은 要因을 들 수 있다.

첫째, 文化的 接觸으로 인한 文化傳播가 服飾變化의 基本的 原因으로 作用했다. 初期의 洋服은 外交官이나 海外留學을 다녀온 男女에 의해 着用되었으며, 韓服 改良도 宣敎師와 接觸한 傳道婦人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 그들은 일찌기 西洋의 文化를 接觸하였기 때문에 服飾 變化의 先驅的 役割을 했다.

둘째, 社會制度 改革의 하나로 服飾改革이 있었으니 政府에서는 法令으로 衣服 變化를 위한 制裁를 加했다. 甲申의 衣制改革, 甲午更張, 己未改革, 斷髮令, 官服의 洋服化 등을 거쳐 傳統的인 韓服 改良에서 始作된 衣服改革이 마침내 洋服化로 바뀌게 되었다.

세째, 기독교의 宣敎와 더불어 近代式敎育이 普及됐으니, 各級 學校의 韓服改良과 洋服制服은 衣服 變化의 先驅的 役割을 했다. 쓰개치마의

(47) 韓沽劤, "韓國社會階層의 近代化過程", 思想界, 1960.10, p.287.
(48) 金泳謨, 前揭書, pp.215~217.

廢止, 머리 모양, 저고리와 치마 길이의 變化 등은 모두 近代式 教育機關의 服裝에서 그 根源을 찾을 수 있다.

네째, 女性의 社會的 進出과 地位 變化는 女服變化의 原因이 되었다. 幽閉生活에서 着用되던 在來의 韓服이 社會活動에는 適合치 않았으니, 女性服의 變化는 役割 變化로 인한 自然스런 現象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開放된 階層體制와 社會的 動搖가 服飾의 自由로운 變化를 더욱 促進하였다. 當時 社會가 混亂하였고, 政府勢力이 微弱했기 때문에 過去의 것을 固守해야 할 根據가 없어졌다. 따라서 價値觀의 變化에 따라 韓服과 西洋服의 混用이 促進되었다.

近世 世界史를 통해 볼 때 다른 나라에서도 閉鎖된 社會가 歐美 諸國과 같은 先進社會에 門戶를 開放하였을 때 政治體制의 混亂과 함께 傳統服의 變化가 나타났다. 中國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900年代부터 西洋服의 影響을 받기 始作했는데 初期에는 辮髮에 대한 斷髮令이 있었으며 西洋服의 着用이 基督教學校에서부터 먼저 始作되었다.(49) 이같은 服飾 變化는 새로운 先進文化에 適應하고자 하는 心理的 要因도 있었겠지만 實用的인 面에서 變化를 試圖하려는 面이 크게 作用하였다.

西洋에서는 科學的인 思考方式의 發達로 服飾의 簡便化와 實用化가 일찍 이루어졌으므로, 閉鎖된 東洋社會가 西洋의 實用的인 文化와 接觸하므로 非活動的인 民俗服이 活動的인 服裝으로 바뀌는 것은 文化進步에 따른 服飾의 자연스러운 變化現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近代 韓國服飾은 先進文化에의 呼應과 더불어 實用性 追求라는 觀點에서 變化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開港 100年 年表·資料集, 新東亞 別冊附錄, 東亞日報社, 1976.1.

高宗實錄, 影印本, 探求堂, 1970.

金美子, 開化期 文官服, 梨大 大學院, 1975.

金泳謨, 韓國社會學, 法文社, 1980.

金鎭玖, 服飾의 機能, 대한가정학회지, 제18권 3호, 1980.

金春善, 韓國 女性 洋裝의 變遷에 關한 考察 : 1945년부터 1960년까지를 中心으로, 梨大大學院, 1977.

閔淑鉉·朴海璟, 한가람 봄바람에 : 梨花 100年 野史, 知人社, 1981.

박상만, 韓國教育史, 중권, 中央教育研究所, 1957.

吳天錫, 韓國新教育史, 現代教育叢書出版社, 1964.

元暎玉, 우리나라 洋裝의 變遷, 國民大學論文集, 1973.

柳喜卿, 韓國服飾史研究, 梨大出版部, 1977.

_____, 韓國女性服飾의 研究, 韓國女性史 Ⅱ, 梨大出版部, 1972.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 一潮閣, 1969.

李圭泰, 開化百景, 2권, 4권, 新太陽社, 1969.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1971.

李永福, 看護史, 壽文社, 1976.

李効再, 開化期 女性의 社會進出, 韓國女性史 Ⅱ, 梨大出版部, 1972.

鄭世華, 韓國近代 女性教育, 韓國女性史 Ⅱ, 梨大出版部, 1972.

丁堯燮, 韓國女性運動史, 一潮閣, 1974.

韓沽劤, 韓國社會階層의 近代化過程, 思想界, 1960.10.

Horn, Marilyn J., *The Second Skin*,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75.

Roach, Mary Ellen Eicher, Joanne Bubolz, *Dress, Adorument,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5.

(49) Marilyn J. Horn, 前揭書, pp.25~27.